

# 18~19세기 증반 서양물품의 조선 유입과 洋物禁斷論\*

노대환\*\*

## 〈차 례〉

1. 머리말
2. 18세기 서양물품의 유입과 반응
3. 19세기 전반 西洋布 유입과 양물금단론의 등장
4. 병인양요 전후 양물금단론과 양물 유입의 변화
5. 맺음말

## [국문초록]

16세기 유럽 상인과 선교사가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류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 것은 물품이었다. 상인들의 목적은 당연히 물품 유통이었으며 예수회 선교사들도 선교를 위해 다양한 물품을 활용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서양 물품이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고 이들 물품은 서양 국가와 교류했던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직접 접촉이 없던 조선에도 소개되었다. 이렇게 유입된 서양물품은 서양인들의 과학적·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서양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과 서양의 관계 연구에서 물품은 매우 중요한 소재지만 그간 서양물품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서양물품의 유입 과정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 특히 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별로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청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한 18세기부터 개항 이전 시기 서양물품의 유입과 그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였다. 필자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1054082).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학과 교수

은 19세기 중반 이후 보수 유럽이 洋物禁斷論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는 역사적 맥락이다. 즉 서양물품이 어떻게 유입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면서 양물금단론이 제시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어] 지명증, 서양화, 西洋琴, 안경, 西洋布, 병인양요

## 1. 머리말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 가마(Vasco da Gama)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하였다. 새로운 인도 항로가 개척되면서 동양과 서양 간의 직접적인 통교가 이루어졌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1511년 말라카를 점령하여 동남아시아의 교역권에 참여하였다. 이어 1554년에는 광저우에서의 통상을 인정받았고, 일본으로부터 나가사키의 무역도 허락받았다. 포르투갈에 이어 에스파냐가 태평양을 횡단하는 새로운 항로를 열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였다. 에스파냐는 1571년 루손의 마닐라를 점령한 후 대형선박을 이용한 무역에 나섰고 뒤이어 네덜란드와 영국도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무역 활동을 벌였다.

유럽 상인의 진출에 이어 예수회 출신의 선교사들도 천주교 전파를 위해 동아시아를 찾았다.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22~1610)는 1601년 유럽 선교사로는 최초로 북경 거주를 허락받았다.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던 그는 중국 사대부들과 교류하면서 천주교와 서양 과학기술을 소개하였다. 그는 1602년에 ‘坤輿萬國全圖’를 제작하여 중국인들이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1603년과 1607년에는 『天主實義』와 『幾何原本』을 각각 출판하여 천주교와 서양 수학도 중국에 알렸다. 마테오 리치의 성공적 적응에 힘입어 과학적 소양을 갖춘 선교사들이 중국에 입국하였으며 이들에 의해 서양의 인문지리학이나 자연과학적 지식이 계속 중국에 전달되었다.<sup>1)</sup>

1) 崔韶子, 『東西文化交流史研究』, 三英社, 1987, 216~220쪽.

유럽 상인과 선교사가 진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던 것은 물품이었다. 상인들의 목적은 물품 유통이었으며 선교사들도 선교를 위해 다양한 물품을 활용하였다. 서양 국가와 관계를 맺었던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직접 접촉이 없던 조선도 이들 물품을 통해 서양 세계를 이해하였다. 그런 점에서 동서 교섭의 역사에서 물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조선과 서양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간 매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서양물품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조선에 들어온 물품 자체가 다양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지만 물품 자체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였다. 최근에 들어서야 박영미가 안경·망원경·자명종을 중심으로 서양 기물이 조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였고,<sup>2)</sup> 강명관은 안경·망원경·유리거울·자명종·양금 등 다섯 가지 서양물품의 유입 과정을 자세히 분석한 저서를 출간하였다.<sup>3)</sup> 강명관의 연구는 조선 시대 물품사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만하다. 이밖에 서양화를 검토한 연구,<sup>4)</sup> 기계학적 관점에서 자명종을 분석한 연구도<sup>5)</sup>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를 통해 서양물품의 유입 과정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지만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사학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청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한 18세기부터 개항 이전 시기 서양물품의 유입과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 보수 유럽이 洋物禁斷論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는 역사적 맥락이다. 즉 서양물품이 어떻게 유입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면서 양물금단론이 제시되는가 하는

2) 박영미, 「19세기 조선인의 서구관-서양 기물의 수용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한문화논총』 32, 2011.

3) 강명관, 『조선에 온 서양물건들』, 휴머니스트, 2015.

4) 李成美,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 대원사, 2000; 홍선표, 『명청대 서화사의 시학지식과 조선후기 회화론의 변동』,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문화』, 해안, 2006; 鄭恩主, 『燕行使節의 西洋畫 인식과 寫眞術 유입-北京 天主堂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0, 2008.

5) 민병희·윤용현·김상혁·기호철, 『홍대용이 제작한 천문시계 통천의의 기계동력시스템』, 『천문학논총』 70, 2020.

점이다. 본고가 서양물품 유입에 따른 사상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18세기 서양물품의 유입과 반응

18세기 이후 서양물품은 중국과 일본 두 경로를 통해 조선에 유입되었다. 중국을 통한 유입은 다시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청 황제의 하사품이다. 1723년(경종 3) 옹정제가 내린 물품 가운데 西洋玻璃罩時辰間鐘·西洋法瑯間鐘 등이 포함되어 있던 것은 그러한 예이다.<sup>6)</sup> 건륭제가 정조에게 洋磁瑠瑯盒을 하사한 일도 있었다.<sup>7)</sup> 중국에서도 서양물품은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내린 것이다. 다만 황제의 하사품은 수량도 많지 않았고 궁에 소장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른 하나는 연행사를 통한 유입이다. 연행사 일행은 천주당을 방문하여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선물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1719년(숙종 45) 연행했던 趙榮福이 천주교서적과 천리경을 받았고, 1720년 연행했던 李器之(1690~1722)는 자명종·천리경·서양화 등을 선물로 받았다.<sup>8)</sup>

관심 있는 물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상인들이 무역해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을 통한 유입 역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본 막부가 보낸 예물이다. 막부는 조선 국왕의 즉위 때 의례적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自鳴鐘·遠鏡이 있었다.<sup>9)</sup> 다른 하나는 동래 왜관을 통한 유입이다.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왜관에서 서양물품이 공급되고 있었다.

6) 『通文館志』, 권10, 『紀年續編』, 11~12쪽.

7) 『日省錄』 正祖 10년 2월 28일.

8) 연행사절의 천주당 방문에 대해서는 원재연, 『서세동점과 조선왕조의 대응』, 한들출판사, 2002, 181~213쪽; 신익철, 『18~19세기 연행사절의 북경 천주당 방문 양상과 의미』, 『교회사연구』 44, 2014 참조.

9) 강명관, 앞의 책, 213~214쪽. 막부에서 보낸 물품은 일본에서 자체 제작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景宗대 보낸 자명종은 일본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던 주요한 서양물품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자명종이다. 자명종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접근할 때 예물로 바쳤던 물품이다. 미켈레 루지에리(Michele Ruggieri, 羅明堅, 1543~1607)는 1582년 중국 본토에서 선교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양광총독에게 자명종을 선물했으며, 마테오 리치는 1601년 북경에서 萬曆帝를 접견하며 크고 작은 자명종을 각각 하나씩 헌상하였다. 자명종은 유입되자마자 중국 상류사회에 빠르게 침투했고 명 말에 이미 자명종을 제작할 수 있는 장인이 등장하였다. 청조에 들어서도 서양에서 자명종이 많이 수입되었다. 자체 생산도 활발하여 청 정부는 自鳴鐘處와 做鐘處를 설치하여 자명종을 만들었고 서양문화와 접촉이 많았던 연해 상하이·난징·광저우 등 연해 지역에는 민간 제작자도 생겨났다. 자체적으로 생산했다고 하지만 자명종은 고가품이어서 주로 상류층이 구입했지만 서양 문화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물품이다.<sup>10)</sup>

기록상으로 자명종이 조선에 처음 유입된 것은 1631년(인조 9) 鄭斗源에 의해서인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사람들이 웃었다고 한다. 1636년 연행했던 金堉(1580~1658)도 북경에서 자명종을 구경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장인 劉興發이 동래를 통해 일본에서 파는 자명종을 구해 연구한 끝에 자명종 원리를 터득하였다.<sup>11)</sup> 자명종은 일찍 조선에 알려졌지만 18세기에도 생소한 물건이었다. 이는 1715년(숙종 41) 관상감 관원 許遠이 북경에서 자명종을 얻어오자 비변사에서 그 제작방법이 매우 기묘하다 하여 자명종을 본 따 만들어 비변사에 두도록 청했던 데서 짐작할 수 있다.<sup>12)</sup> 중국에서 자명종을 구경했던 이들은 기계장치의 교묘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18세기에 연행했던 이기지가 천주당 안의 기물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자명종이었다. 누각에 설치된 큰 자명종을 본 이기지는 제작의 신묘함이 하늘의 교묘함을 흠친 듯하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

10) 이상 중국의 자명종 유입에 대한 설명은 陈开来, 『“自鸣钟”与近代中国社会的变迁』, 『文化遺產』, 2018年 第2期 참조.

11) 金堉, 『潛谷筆談』 권1, 『西洋國人造自鳴鐘』, 강명관, 앞의 책, 208~209쪽.

12) 『肅宗實錄』 肅宗 41년 4월 18일.

하였다.<sup>13)</sup> 黃胤錫(1729~1791)이 李彥復이라는 이가 자명종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1746년(영조 22)에 찾아가 구경한 것으로 보아 18세기 중후반 당시까지도 자명종을 구경하기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언복은 자명종을 구입하는데 60냥을 썼다고 하는데<sup>14)</sup> 1752년 당시 말 1필 가격이 14냥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꽤 고가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서양식 시간관념이 없던 조선에서 자명종은 그다지 효용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가격이 비싸 대개는 재력가들의 완호품적 성격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일부 인사들이 자명종 제작에 나선 것이 주목되는데 洪大容(1731~1783) 등이 1762년에 제작한 統天儀가 대표적이다. 통천의는 자명종의 동력을 사용하여 渾儀를 운용한 기계장치로 『書經』의 璿璣玉衡을 구현한 것이었다.<sup>16)</sup> 동양의 전통 천문의식과 연결하여 거부감 없이 서양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흔히 鬚鬚라 불리던 안경은 자명종과 달리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유입되었다.<sup>17)</sup> 13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이 중국에 전래된 것은 명대에 들어서였다. 청대에 들어 안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광둥지역 사람들이 수정으로 렌즈를 제작했는데 품질이 뛰어났다고 한다.<sup>18)</sup> 일본은 17세기 전반에 포르투갈에서 많은 양의 안경을 수입했고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중국에서 많이 들여왔다. 1768년의 경우는 광둥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안경을 만 여 개 수입하기도 하였다.<sup>19)</sup> 조선에는 임진왜란

13) 이준갑, 『李器之(1690~1722)의 『一菴燕記』에 묘사된 '작은 西洋』, 『한국학연구』 43, 2016, 507~508쪽.

14) 黃胤錫, 『頤齋遺藁』 권1, 『自鳴鐘』, “余曾聞楚山李上舍彥復新購自鳴鐘 其直六十兩其制精巧(中略) 蓋是鐘始出西洋 或云歷倭國傳至我國 其能做製者 京城則崔天若洪壽海 湖南則同福縣人羅景勳而已”.

15) 당시 말 가격에 대해서는 노혜경, 『농업 경영과 치가(治家)』, 『승충명록으로 보는 조선 후기 향촌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242쪽 참조.

16) 민병희·윤용현·김상혁·기호철, 앞의 논문, 54~55쪽. 18세기 전반의 기록인 『延考』에서도 자명종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기옥형을 잘 살펴 七政을 맞추는 것에 비유하였다.(박영미, 앞의 논문, 71쪽) 새로운 문물을 전통적 사고 속에 포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7) 俞晚柱는 서양국에는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것, 조밀한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등 鬚鬚의 종류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欽英』 乙巳部 10월 3일.

18) 『眼鏡の社会史』 제3회 참조. (<https://www.tokyomegane.co.jp/news>). 白山晰也, 『眼鏡の社会史』,ダイヤモンド社, 1990의 내용을 연재한 것인데 책자를 구하지 못해 대신 인용하였다.

을 전후하여 알려졌고 곧바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0)</sup> 시력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안경은 구세주와도 같은 것이어서 李瀾(1681~1763)은 『鬘鬘鏡銘』에서 서양인들이 안경의 아치를 알아내 노인들에게도 젊은이의 눈을 갖게 했다면서 구라과 사람들이 하늘을 대신하여 仁을 행했다고 극찬하였다.<sup>21)</sup> 이익의 언급은 서양물품이 서양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안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경주의 수정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제작했는데 품질은 그리 좋지 않았다. 俞晩柱(1755~1788)는 좋은 안경을 갖는 것은 큰 보배인데 중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우리나라 경주에서 만든 것이 있고, 서양에서 만든 것이 있고, 일본에서 만든 것이 있다면서 서양에서 만든 것이 최상품이고, 우리나라 동경에서 만든 것이 최하품이라고 평한 바 있다.<sup>22)</sup> 1787년(정조 11)에 동지사 편에 정조가 쓸 안경을 구입해 오도록 한 것도 수입 안경의 품질이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sup>23)</sup>

서양그림도 많이 유입되어 관심을 받았다. 천주당을 방문했던 이들은 동양화와는 다른 서양화의 사실적 묘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기지는 천주당에서 벽화를 보고 충격을 받아 『西洋畫記』를 남겼는데 벽에 그려 있는 개가 실제 개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놀라움을 표하였다.<sup>24)</sup> 조선인들은 천주당을 들렀다가 예수회 신부에게 그림을 선물로 받거나 구입하였다. 예를 들어 1720년에 여행했던 李宜顯(1669~1745)은 서양화를 사왔으며, 1732년에 갔을 때는 동당 선교사 프리델리(Xavie Ehrenbert Fridelli, 費隱, 1673~1743)로부터 크고 작은 그림 15폭을 선물로 받았다.<sup>25)</sup>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이들이 대부분 서양화를 사다가 마루 위에 걸어 놓는다고 할 정도로 서양화는 인기를 끌었다<sup>26)</sup> 조선인들이 구입한 서양화는 주로 印本이라 색이 좋

19) 『眼鏡の社会史』 제12회·제14회 참조.

20) 강명관, 앞의 책, 18~21쪽.

21) 李瀾, 『星湖全集』 권48, 『鬘鬘鏡銘』.

22) 俞晩柱, 『欽英』 丙午部 4월 29일.

23) 『正祖實錄』 正祖 12년 4월 20일

24) 이기지의 서양화 평가에 대해서는 李成美,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 대원사, 2000, 92~95쪽 참조.

25)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庚子燕行雜識』 上.

26) 李瀾, 『星湖僊說』 권4, 『萬物門 : 畫像劫突』.

지 않아 사람들이 이롭게 생각했다는 황윤석의 언급을 보면<sup>27)</sup> 중국에서 가져온 서양화는 동판화가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화가 유입되어 많은 이들이 서양화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역시 사실적 묘사 때문이었다. 이익은 마테오 리치가 『幾何原本』 서문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논한 글을 인용하면서 북경에서 가지고 온 서양화를 보면 전각의 구조, 인물과 기물, 모서리의 방원 처리 등이 완전히 실제 모습과 똑같이 그려져 있어 그가 논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감탄하였다.<sup>28)</sup> 『기하원본』 서문까지 인용한 것을 보면 단순한 감상에서 벗어나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인이 그린 누각 그림을 보고 사실적인 묘사에 놀랐던 鄭克淳(1700~1753)은 그런 묘사가 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들이 이미 이에 밝으니 그림으로 하면 천하의 훌륭한 화가가 된다. 그러나 이를 옮겨 토목으로 하면 천하의 뛰어난 목수가 될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어찌서 그럴 수 있는가. 規矩準繩이 정밀해서 일 따름이다. 이제 서양이 바다 밖에 위치에 있어 중국과 몇 만 리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으니 피목과 음식이 중국과 같은 것이 거의 드물다. 하지만 方圓平直은 規矩準繩이 아니면 정밀하게 할 수 없다. 유독 서양인만 그렇겠는가. 미루어 東南과 北海를 보더라도 또한 그렇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 성인의 법이 만세에 전하여 없어지지 않고 천하에 두루 통하여 빠질 수 없는 것은 지극한 이치에 근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치는 천하가 지극히 넓어도 빠뜨리는 것이 없으니 그 같은 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蠻夷戎狄이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를 보면 어찌 믿지 않겠는가.<sup>29)</sup>

27) 黃胤錫, 『頤齋亂藁』 권13, 英祖 45년 12월 14일, “大抵西洋畫軸東來者 多是印本 而丹青渲染 太儂不淡 以故觀者病之”, 李成美, 앞의 책, 85~86쪽.

28) 李漢, 『星湖全集』 권56, 『跋虛舟畫』.

29) 鄭克淳, 『淵雷遺稿』, 『西洋畫記』, “雖然彼既明是 而存於丹青 而爲天下之良畫師也 則移是而存於土木 而爲天下之善梓匠也 亡疑焉 何以能然矣 不過曰規矩準繩之精焉爾 今夫西洋處裨海之外 去中國不知幾萬里而遠 被服飲食 不與之異者幾希矣 而其爲方圓平直 則不能舍規矩準繩而致精焉 豈惟西洋之人哉 推而準諸東南北海 亦莫不然 嗟乎 聖人之法 所以傳於萬世而不可廢 達於天下而不可闕者 非本於至理矣乎 理之在天下 至廣而不遺 其有所同然也 審矣 蠻夷戎狄 皆可以爲聖人 觀於此 豈不信然矣乎”. 이종묵, 「정극순의 연녀유고」, 『문헌과해석』36, 2006, 92쪽 참조.

서양인들이 그림에 뛰어난 것은 성인이 제작한 規矩準繩이 있기 때문이며 다른 이적도 이를 잘 활용하면 서양인들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양인들의 능력을 인정하되 그것을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보았던 것으로 일종의 ‘중국원류설’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서양화를 대하는 이익과 정극순의 다른 시선은 서양물품을 받아들이는 일이 간단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서양 악기 西洋琴도 유입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던 물품이다. 서양금은 현이 쇠줄로 되어 있어 ‘鐵琴’·‘鐵絃琴’, 유럽에서 전래되었다고 하여 ‘歐羅鐵琴’·‘歐邏鐵絲琴’이라고 하였다. 朴趾源(1837~1805)은 중국인들은 서양금을 ‘番琴’이라고 불렀고 서양인들은 ‘天琴’이라고 불렀다고 한다.<sup>30)</sup> 서양금은 마테오 리치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중국에서 이를 모방해 제작했고 조선인들은 북경에 가서 구경하거나 구입하였다. 기록상으로 양금은 1760년(영조 36)에 여행했던 李義鳳(1733~1801)의 『北轅錄』에 처음 등장한다. 북경에서 서양금이라는 새로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던 이의봉은 그 소리가 가야금, 거문고, 비파 소리 같으면서 들을만하다고 평하였다.<sup>31)</sup> 서양금이 조선에 언제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姜世晁(1713~1791)이 1762년에 지은 『八物志』에 ‘서양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762년 당시에 양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1763년 서장관으로 여행했던 李憲默(1714~1788)이 서양금을 가져온 사실도 보인다.<sup>33)</sup> 이처럼 1760년을 전후하여 서양금은 유입되고 있었는데 강세황은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간혹 서양금을 사가지고 오는 이가 있지만 연주법과 성조를 모른다고 하였다.<sup>34)</sup> 연주법도 모르면서 구입한 것은 신기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소리 역시 나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의봉과 마찬가지로 강세황도 서양금에서 금

30) 강명관, 앞의 책, 266쪽.

31) 李義鳳, 『北轅錄』 권3, 1760년 12월 21일.

32) 강세황의 『八物志』에 대해서는 姜景勳, 『『豹菴遺稿』의 『八物志』 草藁本에 대하여』, 『고서연구』 14, 1997 참조.

33) 鄭宗魯, 『立齋集』 권46, 『都承旨安溪李公行狀』, “旣至燕畢使事還 至白塔堡 同行張采維以時相狎人得備關而來 欲專諮譯雜物買賣利 行懼不敢言 公曰諮譯之萬里酬勞 惟此而已 豈可挫於威勢 啓無窮之弊 卽回報備局 極力防塞之 及到義州 閱上使橐裝有潛貨 遂據實狀聞 灣尹亦以故例閱公行裝 只書冊衣袴及西洋琴一張而已”.

34) 姜世晁, 『豹菴稿』 권5, 題跋 『西洋琴』, “東人或有質至者. 未知其鼓法與聲調之如何耳”.

옥소리가 나는데 들을만하다고 평하였다. 1772년경에 연주법이 터득되어 서양금은 경화사족 사이에 유행하였다.<sup>35)</sup>

1770년대까지 서양물품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선에 유입되었다. 이익처럼 기묘한 물건을 만든 서양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 정국순처럼 서양의 우수성을 동양의 전통과 결부하여 설명하는 등 반응은 다양하였다. 어느 편이든 간에 서양물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1784년(정조 8) 李承薰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것을 계기로 천주교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1785년 이승훈·丁若銓·丁若鏞 등이 중인 金範禹의 집에서 천주교 강론 모임에 갔다가 적발되고, 1787년 겨울에 이승훈·정약용 등이 반촌 金石太의 집에 모여 천주교 서적을 강습했던 사실이 이듬해 봄 洪樂安의 親策文을 계기로 문제가 되는 등 천주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마침내 1791년에는 호남 珍山에 사는 尹持忠이 모친의 신주를 태워버린 ‘珍山事件’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정조는 홍문관에 소장되어 있던 서양서를 모두 불태우도록 지시했고,<sup>36)</sup> 규장각에서 보낸 關文에 따라 강화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서양서적도 소각하였다.<sup>37)</sup>

천주교가 문제가 되자 남인 내부에서 척사론이 제기되는 등 반서학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반서학 분위기의 여파는 서양물품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한 징후는 서양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南公轍(1760~1840)은 서양금 연주를 듣고 쓴 『聽鐵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餘音轉作殺伐聲	이어지는 소리 갈수록 살벌성이 되니
曲終歎息淚闌干	곡조 끝나자 탄식하며 눈물 흘리네
卽今中國混夷狄	오늘날 중국에 이적이 뒤섞여
腥羶滿目禮樂崩	보이나니 이적뿐이고 예악은 무너졌네

35) 서양금의 해곡 과정에 대해서는 강명관, 앞의 책, 273~285쪽 참조.

36) 『正祖實錄』 권33, 正祖 15년 11월 2일.

37) 노대환, 「정조대의 사기수용 논의-‘중국원류설’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25-1, 1999, 163쪽.

師襄舊譜邈不傳	師襄 <sup>38)</sup> 의 옛 악보는 아득하여 전해지지 않고
羯鼓蘆笳哀弗勝	갈고 소리 갈대피리 슬픔을 이길 수 없네
西方主殺金屬刑	서방은 살육을 주관하고 금속은 刑具이니
陽消陰長驗至理	양이 사라지면 음이 자라나는 지극한 이치를 징험하네 <sup>39)</sup>

서양금 소리가 들을 만 하다던 이의봉이나 황윤석과 달리 남공철은 서양금 소리를 화이의 문제와 결부시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방은 살육을 주관하고 금속은 刑具’라는 구절에서는 서양세계에 대한 배타적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금속은 서양금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남공철은 1782년 가을에 친구 閔範大가 서양금을 연주하는 것을 오랜 시간 감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서양금 소리를 문제 삼지 않았다.<sup>40)</sup> 이를 보면 『청철금』은 1782년 이후 천주교가 문제가 되고 있던 시기에 쓴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당대 최고의 천문·역학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金泳(1749~1817)은 좀 더 직접적으로 서양금을 비판하였다.

庚申[1800년]에 洋琴이 나라에 성행하는 것을 보고 海石 金相國[金載瓚]에게 말하기를 “이는 아주 살벌한 소리입니다. 동방은 木에 속하는데 金聲이 한창 성행하고 있습니다. 金은 실로 木을 이기니 장차 가까운 곳에서 사특한 변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다음해 辛酉에 耶蘇의 獄이 발생하여 걸러들어 죽은 자가 매우 많았는데 다 연루된 자들이 다 뿌리 뽑히지 않아 지금까지 근심이 되고 있다.<sup>41)</sup>

김영이 서양금이 유행하는 것을 보고 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38) 춘추 시대의 유명한 악사로 거문고 연주에 능했던 인물이다. 孔子가 사양에게 琴을 배웠다.  
 39) 南公轍, 『金陵集』 권2, 『聽鐵琴』. 한시 번역에 고전번역원 정영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기에 지면을 통해 감사로 드린다.  
 40) 南公轍, 『金陵集』 권11, 『閔生詩集序』.  
 41) 劉在建, 『理鄉見聞錄』, “歲庚申 見洋琴盛行於國中 言於海石金相國曰 此殺伐之聲也 東方屬木 而金聲方盛 金實克木 其將有邪釐之變起於肘腋之下乎 翌年辛酉 耶蘇獄起 坐死者甚重 株連不拔 至今爲憂”. 강명관, 앞의 책, 284쪽.

1801년에 천주교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남공철이나 김영이 서양금을 경계한 것은 유교 사회에서 음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일 것이다. 서양물품에 대한 반감 내지 경계심이 생기면서 서양금이 먼저 비판의 표적이 된 것이다. 다만 서양금 외에 다른 서양물품까지 문제 삼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당시 일상생활에 가장 깊숙이 침투했던 것은 안경이라 할 수 있지만 안경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尹櫓(1741~1826)는 척사론자였지만 1793년 서양 안경을 구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 바 있다.<sup>42)</sup> 그런 점에서 18세기 말의 서양금 비판은 선택적 양물금단론의 성격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 3. 19세기 전반 西洋布 유입과 양물금단론의 등장

1801년(순조 1)에 들어 벽파 측은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을 빌미로 남인에 대한 파상적인 정치 공세에 나섰다. 벽파의 핵심 沈煥之는 사학의 괴수를 범으로 다스려 모두 죽이고 도당은 경중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천주교 신자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黃嗣永帛書사건으로 천주교에 대한 반감은 극대화되었고 천주교도의 배후에 서양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양 국가에 대해서도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천주교의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청이나 일본 등과의 공식적인 외교통로를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통로를 철저히 차단하였다. 1811년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은 北京主教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조선인 신자들은 자금이 부족한데다가 국경 감사가 워낙 엄중하여 1801년 이후 북경과 연락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할 정도였다.<sup>43)</sup>

천주교가 문제가 되면서 그간 서양문물 전파의 산실 역할을 했던 천주당 방문이 어려워졌다. 1799년까지도 천주당 방문은 가능했지만<sup>44)</sup> 19세기에

42) 尹櫓, 『無名子集』 詩稿冊三 「贈人覓眼鏡」, “我欲求之不可得 世人兼蓄徒深儲 煩君爲覓西洋品 免教眵昏送三餘”.

43) 샤를르 달레 저·安應烈崔奭祐 譯註, 『韓國天主教會史』 中,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25쪽.

44) 徐有聞, 『戊午燕行錄』 권4, 1799년 1월 19일.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승훈이 천주당에 갔다가 서양인과 교류하고 천주교 책자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 천주교를 전파하고 황사영이 천주당을 통해 군함을 파견하여 조선 정부를 위협해주도록 청원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천주당을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1804년 서장관으로 연행했던 元在明(1763~1817)은 예전에는 천주당에 가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근래에는 防禁이 매우 엄해 들어가 볼 수 없다며 매우 안타까워하였다.<sup>45)</sup> 1828년에 연행했던 한 지식인은 신유사옥 이후 우리나라 사람이 천주당에 출입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sup>46)</sup> 1832년 동지사겸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했던 金景善 역시 “洋術은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금하고 있어 서로 접촉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陰邪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는 눈으로 보거나 발로 밟으려고도 하지 않는다”<sup>47)</sup>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였다. 천주당 방문이 원천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방문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sup>48)</sup>

천주교와 서양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서양물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수유림 가운데 전면적인 양물금단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노론계 척사론자 兪星柱(1760~1837)는 서양 책은 비록 수학·농정·의약에 관계된 것이라도 일절 보지 않고 洋物을 집에 두지 않았으며 자손들에게도 이런 태도를 바꾸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sup>49)</sup> 보수유림이 아니더라도 서양물품에 대한 경계심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孝明世子(1809~1830)는 망원경·자명종·자명약 등을 소재로 시를 짓는 등 서양물품에 관심이 많았다. 자명종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 줌 없이 절로 돌며/ 하루 열두 시각 종을 치느냐/ 예부터 하늘 살피는데 조화 많았지만/ 공교함은 서양사람 같지 않네’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sup>50)</sup> 하지만 서양금에 대

45) 元在明, 『芝汀燕記』 권3, 1805년 1월 22일.

46) 저자 미상, 『赴燕日記』, 『往還日記』 1828년 6월 25일.

47) 金景善, 『燕輶直指』 권3, 『留館錄 上: 天主堂記』, “洋術今爲兩國禁條 非但不許相接 概聞其陰邪之意 亦不欲目觀而足躡”.

48) 1831년 연행했던 韓弼教(1807~1878) 일행은 천주당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遊賞隨筆下: 天主堂』.

49) 兪莘煥, 『鳳棲集』 권8, 『先考復元齋年譜後記』.

해 “세속에서는 서양금 소리를 듣는 것을 점점 좋아하는데 서양금이 나온 이후로 古樂이 점차 없어진다. 極西 지방의 소리로 해 뜨는 나라를 튀기니 쇠가 나무를 누르는 이치가 맞는다.”면서 극히 焦殺하여 군자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sup>51)</sup> 金正喜(1786~1856)도 서양금에 대해 小雅가 다 폐기되어 종경 소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식하였다.<sup>52)</sup> 18세기 말부터 문제가 되었던 서양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던 것이다. 보수유림 李恒老(1792~1868)는 사람을 교화하는데 음악만한 것이 없는데 철현의 거문고를 만들어 동방 木旺의 나라에 서방의 소리를 연주하여 들려주면 그 해가 크다면서 양금을 끊은 후에야 저들의 教를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53)</sup> 후일 梁憲洙(1816~1888)는 스승 이항로가 조선에서 서양금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는 30년 후에 국가에 반드시 양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병인양요로 실제 징험되었다고 밝혔다.<sup>54)</sup> 서양금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서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서양물품에 대한 호기심 자체가 없어졌던 것은 아니다. 이는 신기한 것을 보면 반드시 ‘西洋物’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李圭景(1788~1860)의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다.<sup>55)</sup> 천주당 방문이 어려워지자 연행사 가운데 러시아인들이 머물고 있던 俄羅斯館을 방문하여 서양물품을 구경했던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라사관을 방문하면서 ‘自鳴琴’ 혹은 ‘自鳴樂’으로 불리던 새로운 물품인 오르골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1828년 진사겸사은사행에 참여했던 『赴燕日記』의 저자

50) 孝明世子, 『敬軒集』 권2, 『山齋詠物詩：自鳴鐘』, “誰教不息自行輪 一日撞鐘十二辰 從古測天多造化 巧工莫似西洋人”.

51) 孝明世子, 『敬軒集』 권8, 『介石室筆談』(庚寅夏 1830년), “鐵琴極焦殺 不宜君子之邦 世俗漸喜聽此 此琴之出 古樂漸無 以極西方之音 彈日出之國 金克木之理 其合哉”.

52) 金正喜, 『阮堂集』 권7, 『番琴銘』.

53) 李恒老, 『華西集』 부록 권6, 『趙性愚錄』, “又曰 化人者無如音樂 而乃作鐵絃之琴 彈得西方之聲於東方木旺之國 其害害也如何 而以是化人則果善耶否耶 先爲禁絕彼物 然後彼教可止也”.

54) 梁憲洙, 『荷居集』 권2, 『祭華西先生姓李氏諱恒老文』, “洋琴之始行於國中也 先生語人曰 三十年後 國家必有洋憂 聞者 未之信也 至是而乃驗”.

5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고전번역원 전산화자료), 『甌禾洋稻辨證說』, “我東俚諺. 凡物之神奇者. 必曰西洋物. 故強名之”.

는 일행과 함께 아라사관을 방문하여 자명종·자명악 등의 각종 기물을 살펴보았다. 1828년 사은겸동지사행에 참가했던 朴思浩도 아라사관에 들러 자명종·자명금을 구경하였다.<sup>56)</sup> 자명금은 이전에 천주당에서도 잘 볼 수 없던 새로운 것이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832년에 여행했던 金景善(1788~1853)도 아라사관에서 저절로 음악이 연주되는 자명금을 보고 기이한 기예라고 평가했으며,<sup>57)</sup> 김경선과 같이 여행했던 金進洙(1797~1865) 또한 자명금을 보고 텅 빈 상자 속에서 많은 음악과 음률이 들어맞는 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문고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감탄하였다.<sup>58)</sup> 1836년 여행했던 任百淵(1802~1866)은 청측 인사로부터 16곡을 연주할 수 있는 洋音樂盒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것이 자명금이나고 물었다.<sup>59)</sup> 아마도 아라사관에 다녀왔던 이들이 자명금에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임백연도 양음악합이 자명금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라사관이 서양물품의 접촉 창구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러시아인을 야만시하는 인식이 있던 데다 러시아인들도 천주교를 믿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赴燕日記』의 저자 일행은 아라사관의 천주당이 해괴하여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절대 이곳을 방문하지 말라고 충고기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sup>60)</sup>

한편 정부도 중국으로부터의 물품 유입을 일부 통제하고자 하였다. 1838년(헌종 5) 7월에 우의정 李止淵이 각처의 장사치가 물화를 가지고 뒤섞여 들어가 자유롭게 교역하는 것을 막도록 청하자 대왕대비 純元王后는 근래 象譯輩들이 긴요하지 않은 기호품을 많이 들여와 중국에 부끄러움을 끼치고 있다면서 이런 폐단을 없애라고 지시하였다.<sup>61)</sup> 이에 비변사는 지시를 받들어 8월에 『使行時諸條禁飭節目』을 만들었다. 절목 안에는 금수품목인 ‘燕貨禁條

56) 朴思浩, 『心田稿』 권3, 『留館雜錄 : 鄂羅斯館記』.

57) 金景善, 『燕轅直指』 권3, 『留館錄』 上, 1832년 12월 26일.

58) 金進洙, 『碧蘆續集』 권3, 詩, 『燕京雜詠 : 似函非匣』.

59) 任百淵, 『鏡渚遊燕日記』, 『鏡渚行』 권坤, 1837년 1월 18일.

60) 저자 미상, 『赴燕日記』, 『往還日記』 1828년 6월 25일.

61) 『備邊司謄錄』 憲宗 4년 7월 30일.

物名別單'이 들어 있는데 서양물품으로는 자명금·자명악·洋磁 등이 금수품으로 지정되었다.<sup>62)</sup> 1820년대에 들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던 자명금이 금지품목이 된 것은 조선에 계속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규경은 북경에서 자명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조그만 상자 안에서 여러 음악이 저절로 울리며 八音が 모두 갖추어져 있고 六律이 잘 조화되어 우리나라의 輿民樂 곡조와 유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sup>63)</sup> 서양 자기의 경우 언제 유입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규경에 따르면 북경이나 왜관에서 들여온 자기 가운데 구리 안팎에 자기를 바르고 여러 색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西洋器'라고 불렀다고 한다.<sup>64)</sup>

1838년 금수품목의 지정이 반드시 서양물품을 겨냥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에 잠입하여 포교활동을 하던 다블뤼(Daveluy) 주교는 1851년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물은 조선으로 들여올 수 없지만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망원경·현미경·稜鏡·오르골 같은 것들은 통관이 가능할 것 같으며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sup>65)</sup> 금지품목이었던 오르골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다블뤼 주교가 조선 사정을 잘 알고 있지는 않았던 듯하지만 서양물품의 수입이 가능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지품목이 지정됨으로써 오히려 그 이외 양물은 수입이 자유로워지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서양산 면직물인 西洋布였다.

서양포는 19세기 중반에 유입된 가장 대표적인 서양물품이다. 본래 서양포는 인도산 면포를 말하는데 명대에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에 진상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의 기준에서 인도 지역은 서양이기 때문에 인도산 면포가 서양포로 불렸던 것이다. 16세기 이후에는 서양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

62) 『備邊司謄錄』 憲宗 4년 8월 22일.

6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自鳴樂自動戲辨證說』, “近有自鳴樂者 自燕出來或傳 狀如小方檯 衆樂自鳴其中 八音備具 六律克諧 竝雙聲相應 頗類我東輿民樂調”.

64)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大食窰琉璃器辨證說』, “今窰中 自燕都倭館來者 有以銅爲器範 表裏傳窰 畫以諸彩 宛如瓷器 稱以西洋器”. 같은 글에서 이규경은 북경에서 나온 자명종이나 휴대시계 같은 것들의 전면에 범람 조각 장식이 있다고 하였다. 자명종 역시 계속 유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5) 내포교회사연구소,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2018, 171쪽.

한 서양포를 가지고 와서 동남아의 서양포 무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산지가 달랐지만 두 제품은 모두 서양포로 불렸다. 원대까지의 서양포는 인도산 면포를 지칭했지만 예수회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온 17세기에 들면서 또 다른 이름의 서양포도 중국에 소개된 것이다. 『職方外記』에서 플랑드르 지방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서양포 가운데 가장 가볍고 고운 것이 모두 이곳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중국 내부의 면직 산업이 발달하여 인도산 면포나 서양산 면포 모두 중국에서 많이 판매되지 못했지만 서양산 면포는 상류층 사회에서 애호품으로 점차 인기를 끌게 되었다. 청초에 들어서는 시문 가운데 서양포를 찬미하는 작품이 출현하기도 하였다.<sup>66)</sup>

조선에서는 사료 상으로는 조선 전기에 명에서 서양포를 하사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이때의 서양포는 인도산 면포로 생각된다. 서양산 면포에 대한 최초의 기술은 『芝峯類說』에 보인다. 李睟光은 佛浪機國을 설명하며 서양포가 극히 가볍고 섬세하다고 소개하였다.<sup>67)</sup> 서양포가 언제 조선에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양포는 중국에서도 상류층에서만 소비되는 진귀한 제품이었던 때문에 구입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777년(정조 1)에 여행했던 李堉은 서양국을 설명하면서 서양포에 대해 “利諾草로 짜는데 면포보다 더 튼튼하고 깨끗하며 1필 값이 십 수 금에 이르기에도 하는 떨어져 해진 것을 빨아 다듬어서 종이를 만들면 결백하고 오래 간다”고 설명하였다.<sup>68)</sup> 이를 보면 이같은 중국에서 서양포의 존재를 처음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 당시에도 조선에 서양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에서도 서양포는 상류층에서만 소비되었지만 산업혁명의 결과 19세기 초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에 직포공장이 설립되어 대량 생산이 가

66) 王元林·林杏容, 「十四至十八世纪欧亚的西洋布贸易」, 『东南亚研究』 4, 2005 참조.

67) 李睟光, 『芝峯類說』 권2, 「諸國部：外國」, “佛浪機國 在暹羅西南海中 乃西洋大國也 其火器號佛浪機 今兵家用之 又西洋布極輕細 如蟬翼焉”.

68) 李堉, 『燕行記事』, 「聞見雜記：雜記-聞見雜記 下」. 서양포에 대한 이같은 설명은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南懷仁)의 『西方要紀』, 「土產」조의 내용이다. 여기에 “포는 利諾草로 짜는데 면포보다 더 튼튼하고 깨끗하며 좋은 것은 1필 값이 십 수 금에 이르기에도 하는데 이른바 진짜 서양포가 이것이다. 이 포가 해지면 찌어 종이로 만들 수 있는데 깨끗하고 오래간다.(“布則 以利諾草爲之 視棉更堅且潔 佳者 一疋可十數金 所謂眞西洋布是也 此布用壞 又可搗爛爲紙 瑩潔耐久”)고 나와 있다.

능해지면서 서양산 면포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수출되었다.<sup>69)</sup> 1828년의 『부연일기』에서는 폭이 넓은 綿木布인 西洋木라는 것이 있는데 값이 그리 비싸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나지 않아서 입어 볼 만하다고 소개하였다.<sup>70)</sup> 이때까지도 조선에서 서양포는 생소한 물품이었지만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sup>71)</sup> 서양포는 인기가 많아 판매권을 놓고 靑布塵과 銀木塵이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1837년(헌종 3) 청포전 시민들은 서양포·大布·三升을 은목전에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청원했고<sup>72)</sup> 이에 대해 우의정 朴宗薰이 서양포와 唐木은 市案에 현재 실린 품목이 아니고 또 토산으로 항상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한 전에 대강 속하게 할 필요 없이 분수에 따라서 서로 팔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였다.<sup>73)</sup> 1840년에 漢山居士가 지은 「한양가」에 白木塵이 西洋木과 西洋絹가 있다고 되어 있어 백목전 즉 은목전에서도 서양포를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843년에는 은목전 시민들이 서양목은 면직물이므로 자신들이 말아야 하는데 난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를 난전으로 다스려 줄 것을 청했고,<sup>74)</sup> 帽子塵 시민들도 각종 서양 緞絢紋·西洋布 등을 난매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75)</sup> 서양포가 유행하여 토포를 잠식하기에 이르자 1847년 백목전 시민들은 西洋木이 나온 이후 토산이 무용지물이 되어 직업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수입을 일절 금지하거나 백목전에서만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sup>76)</sup> 또 1853년(철종 4)에는 서양포

69) 영국산 면제품의 중국 수출량은 1829년부터 1842년 사이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嚴中平著·依田憲家譯, 『中國近代産業發達史』, 校倉書房, 1966, 74~75쪽 참조.

70) 저자 미상, 『赴燕日記』, 『主見諸事：紡績』.

71) 이규경은 중국 광둥성에서 짠 면포가 조선으로 들어와 입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서양의 직조술을 배워 만든 것이라 서양포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五洲衍文長箋散稿』, 『紡車辨證說』, “近聞中原廣東省織綿布【廣幾二尺許 細如蠶絲 流出我東 無人不著 名曰西洋木 蓋學於西人能織也】 織機用水輪 梭能自行 不假人力而織作”.

72) 『備邊司謄錄』 憲宗 3년 1월 11일.

73) 『備邊司謄錄』 憲宗 3년 2월 11일. 박중훈이 서양포와 당목으로 분류한 것을 보면 면포를 서양산과 중국산(대포·삼승)으로 구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상품을 둘러싼 시전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고석규, 「19세기 전반 서울의 시전상업」,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338~342쪽 참조.

74) 『備邊司謄錄』 憲宗 9년 3월 6일.

75) 『備邊司謄錄』 憲宗 10년 2월 13일.

76) 『備邊司謄錄』 憲宗 13년 1월 25일.

의 성행으로 비단을 취급하는 피해를 입은 立塵 상인들이 洋貨 가운데 무늬가 있는 것은 입전에서만 취급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77)</sup>

서양포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용품이었기 때문에 금지대상도 아니었고 착용감이 좋아 널리 확산되면서 조선의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었다. 서양포의 확산으로 보수유립 사이에서는 양물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높아져 양물을 금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蘇洙榘(1774~1841)는 집안사람들이 서양포를 입지 못하게 단속하면서 洋賊들처럼 운상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없으니 차라리 얼어 죽을지언정 洋賊의 물건을 몸에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78)</sup> 보수유립이 가장 우려한 것은 서양물품에 대한 관심이 천주교 신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천주교를 종식시키기 위해 서양물품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李正觀(1792~1854)은 1839년에 저술한 『關邪辨證』에서 역관배들을 단속하여 다른 나라의 異物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교를 금지하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金平默(1819~1891)은 1847년부터 저술하기 시작한 『벽사변증기』에서 외국의 이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역관배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양물이 전적으로 역관배들에 의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김평묵은 관리들이 이양선이 왕래해도 따지지 않고 서양인들이 산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도 체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이물로 耳目을 즐겁게 하며 일신의 편안함만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서양물품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척사 의식이 마비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왕이 결단을 내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양물을 거둬들여 대궐 밖 변화가에서 소각하게 함으로써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器用 등은 고대 중국에서 천연하게 다 갖추었으며 서양인들에게 설사 중국인들이 따를 수 없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벌이 꿀을 만들거나 말이 길을 잘 이는 것과 같은 하찮은 재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sup>79)</sup> 기계장치

77) 『備邊司謄錄』 哲宗 4년 1월 18일.

78) 洪直弼, 『梅山集』 권46, 『進士蘇公行狀』(己酉 1883년), “禁家人衣西洋布日滅倫亂常。未有如洋賊者。寧凍死耳。不可以此賊手中物近身也”.

79) 金平默, 『重奄別集』 권5, 『關邪辨證記疑』.

를 갖춘 서양물품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보수유립이 양물금단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서양물품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南秉哲(1817~1863)은 글귀에 자명종이나 자명금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서양 각국은 모두 이런 기계를 만들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2천 명이나 되고 제작법도 계속 변해 그 기교가 사람들의 의표를 찌른다고 평가하였다.<sup>80)</sup> 崔漢綺(1803~1877)는 동양의 전통 천문학에서는 천문을 災祥과 연결시키는데 반해 서양인들은 큰 망원경을 통해 천문의 이치를 밝혀냈다고 지적하면서 기계가 정밀해짐에 따라 사람의 식견도 더욱 넓어지게 된다고 강조하였다.<sup>81)</sup> 하지만 19세기는 이런 견해가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최한기가 중시했던 망원경을 예로 들자면 천문관측용은 고사하고 일반 망원경조차 거의 없었다. 망원경은 영조가 군문에서 없어 안 될 물건이라고 밝히 바도 있지만<sup>82)</sup> 1808년에 편찬된 『萬機要覽』에는 군영에서 보유하고 있던 망원경은 금위영의 단 1대 뿐이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sup>83)</sup>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함대가 서해상에서 출현했을 때도 瞭望將 혹은 지방관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보고하는 형편이었던 것을 보면<sup>84)</sup> 60년 사이에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서양물품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배타적 인식만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 4. 병인양요 전후 양물금단론과 양물 유입의 변화

19세기에 들어 천주교 문제로 인해 서양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던

80) 南秉哲, 『圭齋遺藁』 권5, 『驗時儀說』.

81) 崔漢綺, 『氣測體義』 권6, 『推物測事 星名災祥之非』. 강세황도 천리경을 통해 天象을 살피면 일월성신을 자세히 살필 수 있어 달에 계수나무 그림자가 보인다는 등의 이야기가 허황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姜世晃, 『豹菴稿』 권5, 『書西洋人所畫月影圖摸本後』).

82) 『承政院日記』 英祖 28년 4월 5일, 강명관, 앞의 책, 135쪽.

83) 『萬機要覽』 軍政篇3, 『禁衛營 軍器』.

84) 『京畿道水營狀啓曆錄』 2, 同治 5년 9월 6일.

것과는 별개로 양물은 계속 유입되고 있었다. 특히 서양포의 인기는 1860년대 들어서도 여전하였다. 안동 풍산 김씨가 1860년 일기에 보면 權載衡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 나와 있다. 남쪽 끝에 있는 섬들 가운데 땅이 매우 큰 南朝鮮이란 나라가 있는데 지금 조선 연해에 왕래하는 이양선이 모두 그 나라 사람이며 조선인도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낭자한 洋布·洋紬·洋段이 모두 그 나라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였다.<sup>85)</sup> 양포·양주·양단 등이 조선에 많이 수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서양물품은 北邊 開市나 동래부를 통해 유입되고 있었는데 유입량이 적지 않아 의복·기용이 청나라 것 아니면 서양 것이라고 이야기되는 상황이었다.<sup>86)</sup> 1864년(고종 1)에는 잠상들이 황해도 옹진의 여러 섬에 왕래하며 물화를 교역한다는 소문이 있어 정탐하여 잠상을 체포했는데 그들이 취급한 물건 가운데도 西洋木도 들어 있었다.<sup>87)</sup>

양물 확산은 이 시기 보수유림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양물 유입이 계속 되자 보수유림은 서양포를 비롯한 양물의 전면 금단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일단 주변부터 단속하였다. 노론 산림 任憲晦(1811~1876)는 1862년 딸을 시집보내면서 서양목은 임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금수 같은 나라에서 나온 것이라 평소에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혼수로 쓸 수 없다고 했고,<sup>88)</sup> 딸에게도 결혼한 후 서양포를 입지 말도록 경계하였다.<sup>89)</sup> 문인들에게는 아예 서양물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하였다.<sup>90)</sup> 호남 학인으로 기정진의 문하에서 공부했던 閔璣植(1824~1885)은 집안사람이 洋針으로 옷 바느질을 하자 꾸짖으며 양침으로 바느질한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sup>91)</sup> 양물에 특히

85) 『日記』(한국국학진흥원 소장) 庚寅 1860년 正月 二十日, “載衡言極南海島中 有南朝鮮 其國甚大 卽今四海來往異樣船 皆其國人 朝鮮人亦多投入 其學西洋 其布西洋 故洋布洋紬洋段 浪藉於本國 皆自其處出云”.

86) 『龍湖閒錄』三, 「正言李晚者上疏」, “而今也中外之恬侈成俗 服玩器用 非唐則洋”.

87) 『承政院日記』高宗 1년 8월 1일.

88) 任憲晦, 『鼓山集』 권4, 「與申汝綏光奎」(壬戌 1862년).

89) 任憲晦, 『鼓山續集』 권1 上, 「誠女孟順 申在嫻妻字」.

90) 申箕善, 『陽園遺集』 권12, 「贈正二品資憲大夫內務大臣行嘉善大夫吏曹參判兼侍講院贊善成均館祭酒經筵官書筵官全齋任先生諡狀」.

91) 金顯玉, 『山石集』 권6, 「閔鳳里先生行狀」, “蘆沙先生丙寅一疏謂爲萬世傳否泰消息 嘗見家人以洋針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이항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양물 문제에 접근하였다. 양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문인에게 이항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러한 외구를 막는 것은 매우 쉽다. 만 리 밖에서 오는 자는 스스로 군량을 마련할 수 없으니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식량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양인들이 포복 같은 것으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재물을 거두어 군량을 원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상하 모두 양물을 보물처럼 여겨 혼인하는 집안에서는 서양 포복으로 의복과 이불을 만들어야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천한 부류들 또한 서양 포복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죽어도 한이 없다고 여긴다. 모든 방법을 써서 양물을 교역하고자 하니 이는 우리 스스로 외구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다시 누구를 탓하겠는가.<sup>92)</sup>

양물을 구입한 돈이 서양세력의 침략 자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해결책으로 상하신민으로 하여금 양물을 원수처럼 여기고 이미 가지고 있는 양물은 모두 불살라 양인들이 식량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수유립은 정부에도 양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1866년 4월 사헌부 지평에 제수된 崔益鉉(1833~1906)은 실제 올리지는 못했지만 6조를 건의하는 상소문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한 조목이 서양의 妖氣를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중국이 혼란스러우면 외국의 怪鬼들이 출현하는 것은 당연한데 특히 서양 족속은 금수와 같은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에서 서양 선박이 출몰해도 검문하지 않고 천주교도들이 모여도 잡아들이지 않아 무리가 점점 번성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교가 퍼지

縫衣 呵禁之不著其所縫 曰禁洋物 吾有所受也 其篤信師說類如此 晚年挈家入堤川爲族”.

92) 李恒老, 『華西集』 부록 권4, 『朴慶壽錄』, “如此之寇 禦之甚易 夫來從萬里之遠者 不能自辦軍糧 其勢必取食於此矣 今洋人以布木之屬愚我 而取財以資糧 我人都不省悟 上下相攀 以洋物爲寶 婚姻之家 以此爲衣服衾枕 則以爲能事畢矣 輿臺之流 亦以此爲衣裳袴禪 則以爲死無恨矣 千方百計 交貿洋物 是自我招寇也 復誰尤焉”.

게 된 것은 사대부들이 도학을 버리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며 예법으로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사특한 천주교도를 주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서양인들이 물화의 교역을 통해 생활 자금을 마련하고 아울러 사람들을 유인하여 通情하므로 양물을 사용하면서 사술을 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양물과 우리의 토산품을 교역하면 우리의 처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양물을 쓰거나 파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사교를 전파하는 길을 끊고 민생의 근본을 넉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3)</sup>

정부도 서양포를 비롯한 서양물품의 유입에 주의를 기울였다. 좌의정 金炳學(1821~1879)은 고종에게 다음과 같이 양물의 심각성을 전하며 금단책을 건의하였다.

우리나라 布帛의 아름다움은 진실로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 서쪽으로 燕나라와 남쪽으로 왜에 이르기까지 또한 있고 없는 것을 무역하니, 이 밖의 玩好之物은 곧 나라의 재물을 소모하고 백성들의 뜻을 잃게 할 뿐입니다. 근일에 서양의 물화가 온 나라에 가득하여 식견 있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한탄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이양선이 와서 교역을 청한 것이 모두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 한 것이니, 이것을 만약 심상하게 보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후에 무궁한 염려가 또한 이르지 않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曆行부터 시작하여 무릇 서양 물건에 속하는 것은 緞紗나 器用을 막론하고 일절 금단하고, 三江에서 수색하여 검사한 후에 만약 함부로 범하여 적발된 자는 즉시 효수하여 경계하도록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94)</sup>

김병학은 무분별한 수입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양물교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흥선대원군의 뜻이었지만 고종도 김병학의 건의를 받아들여 緞紗·器用 등의 洋貨를 중국에서 무역하는 것을

93) 崔益鉉, 『勉菴集』 권3, 『丙寅擬疏』.

94) 『承政院日記』 高宗 3년 7월 30일.

금지하고 三江 즉 압록강 부근을 수색하여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효수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도록 지시하였다.<sup>95)</sup>

보수유립의 양물금단 주장은 병인양요가 발생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프랑스 함선이 출현하자 奇正鎭(1798~1879)은 소를 올려 “요사이 호화스럽고 경박한 자들이 양물 사두기를 좋아하고 양복 입기를 즐긴다고 하는데, 가장 상서롭지 않은 일이며 반드시 海寇가 우리나라로 올 조짐”이라고 지적하면서 塵人들이 비축하고 있는 양물을 모두 거둬 길거리에서 태우고 이를 무역해서 들어오는 자는 외구와 교통한 죄로 다스리도록 요청하였다.<sup>96)</sup> 1866년 8월 20일 프랑스 함선이 경강에 진입하자 영남 유생들은 성균관에서 집회를 열고 사학을 금단하는 논의를 영남에 알리기로 하였다. 이에 영남 학인 朴致馥(1824~1894)이 『斥邪文』을 지었는데 사학을 금지하기 위한 조목으로 ‘異類의 기찰’과 ‘洋物の 금절’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양물에 대해서는 마음을 값아먹고 뜻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사대부는 물론이고 그들의 부인이나 아이들부터 下賤에 이르기까지 양물을 사용하면 家長을 금단하고 里首를 징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7)</sup> 이항로는 9월 21에 소를 올려 外物에 이끌려 휩쓸려서는 안 되는데 외물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양물이라면서 대궐에서 쓰는 양물을 모두 불살라 몸을 바로잡고 모범을 보이도록 요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에서 양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역이 끊어질 것이고 교역이 끊어지면 양인 역시 奇技淫巧한 물건을 팔 수 없어 왕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sup>98)</sup> 양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양세력이 조선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것이었지만 당시 그의 위상을 생각하면 과급력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95) 『承政院日記』 高宗 3년 7월 30일.

96) 奇正鎭, 『蘆沙集』 권3, 『丙寅疏』, “近日豪華輕薄 喜蓄洋物 耽服洋布 最爲不祥 殆海寇東來之兆 朕命中外官 搜括塵人所儲洋物 焚之通衢 凡嗣後買來者 施以交通外寇之律 亦定民志之一道”.

97) 朴致馥, 『晚醒集』 권9, 雜著 『斥邪文 洋船二隻入京江 嶺儒大會泮宮 通論嶺中 議所以斥邪學云』 (丙寅 1866년 八月 二十日), “況此物直出於西洋 而爲蠱心喪志之尤物者乎 繼自今士大夫則不暇舉論 而婦人孺子僥輿下賤 一有冒犯 則斥其家長 懲其里首 廓然迅掃 無復容貸 則庶乎邪氣肅清而闔境乾淨矣”.

98) 李恒老, 『華西集』 권3, 『辭工曹參判疏 三疏』.

프랑스 함대가 조선에서 완전 철수하자 정부는 양물 금수조치를 재확인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고종은 서양인들이 매번 교역을 청하는 것은 조선인들이 서양물품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삼강을 수색해 서양 물건을 교역하다가 발각되면 먼저 의주부에서 목을 벤 후 나중에 보고 하라고 지시하였다.<sup>99)</sup> 의정부에서 서양물품이 동래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또한 적지 않다고 들었다면서 동래부에서의 교역도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고종의 허락을 받았다.<sup>100)</sup> 서양물품 금수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11월 5일에는 청 예부에 자문을 보내 1866년에 서양 선박이 접근한 사실을 보고 하면서 양이에게 곤욕을 더 받게 되더라도 양이와의 통상·전교·배상 등은 우리나라의 민정이나 국세로 보아 절대 시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sup>101)</sup>

러시아 대장성에서 발행한 『韓國誌』에는 개항 이전 北邊 開市 교역품목 가운데 서양 화물로 영국 샷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1866년 병인양요 이후 금수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되어 있다.<sup>102)</sup> 1868년 고종은 洋貨를 邦禁으로 삼아 이미 금석 같은 법이 되었고 근래 관문을 보내 신칙한 것이 매우 절엄하였는데도 灣路가 막히자 萊市에서 물건이 몰래 나오고 있다면서 동래 쪽에서 거래하는 자는 먼저 목을 벤 후에 알리고 적발한 물품은 압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sup>103)</sup> 지시가 있는 후 동래부에서 洋貨를 몰래 들여오려던 자가 잡혀 처형되기도 하였다.<sup>104)</sup>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서양물품의 유입은 크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병인양요 이전에는 조선에 서양물품이 성행했으나, 지금은 서양물품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일본 외무성의 보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sup>105)</sup>

99) 『承政院日記』 高宗 3년 10월 18일.

100) 『高宗實錄』 高宗 3년 10월 20일.

101) 『日省錄』, 高宗 3년 11월 5일, “凡係洋夷之通商傳教賠償諸事 小邦之民情國勢 雖幾年受困於洋夷 斷不可行矣”.

102) 韓沽勳,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 『朝鮮時代思想史研究論攷』, 일조각, 1996, 332쪽.

103) 『慶尙左水營關牒』 高宗 5년 3월 19일.

104) 『日省錄』 高宗 5년 8월 4일.

105) 『일본 외무성, 조선과의 외교관계 모색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함』(1870년 4월 15일),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고종시대사』 4, 2015, 180쪽.

하지만 정부의 양물 금수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봉착하였다. 서양 목 등의 수입이 금지되어 관세청의 형편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고종은 양목은 서양물품이라는 이유로 금지했지만 지금은 광동의 직조물이 되었으니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수입 금지를 해제하되 다만 이를 틈 타 다른 서양 물화가 섞여 들어오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洋靑’과 ‘洋紅’ 같은 물감이 서양물품과 관계 되고 색깔도 몹시 부정하니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sup>106)</sup> 이렇게 정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1873년 말 대원군이 하야했기 때문이지만 이제 척사의 이유만으로 양물을 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고종은 보수유림 최익현을 끌어들이어 대원군을 사실상 탄핵했지만 대원군이 물러나자 대외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여 일본과의 교섭에 나섰다. 일본을 서양화된 국가로 인식했던 보수유림은 일본과의 강화에 필사적으로 반발하였다. 김평묵은 1876년 1월에 일본과의 강화에 반대하는 「斥洋大意」를 지었다. 김평묵은 왜선 몇 척과 병사들에게 겁먹을 필요가 없고 포병을 모으고 엄히 방수하며 양물을 불태우고 교역을 끊으면 충분히 일본을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sup>107)</sup> 경기·강원·충청 지역의 화서 문인이 중심이 되어 강화에 반대하는 복합상소에 나섰다. 김평묵은 복합상소문에서 왜인들에게 칙령을 수정하고 서양과의 관계를 끊도록 요구하는 한편 궁궐이나 민간에서 쓰는 양물을 모두 거둬들여 불태움으로써 서양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8)</sup> 또 양물을 모두 소각한 후 양물 교역을 일절 금지한다고 반포하고 나서 일본의 동정을 살펴 만약 이를 문제 삼으면 결전을 불사하자고도 하였다.<sup>109)</sup> 서양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확실한 징표로 양물

106) 『高宗實錄』 高宗 11년 5월 5일.

107) 金平默, 『重菴集』 권38, 「斥洋大意」(丙子 1876년 正月).

108) 金平默, 『重菴集』 권5, 「代京畿江原兩道儒生論洋倭情迹仍請絶和疏」(丙子 1876 正月). 보수유림은 궁궐 내부부터 양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69년 궁궐 군사가 나인 방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되었는데 그가 훔친 물건 가운데 서양에서 들어온 목면으로 옷이 들어 있던 것으로 보이(『承政院日記』 高宗 6년 10월 22일) 궁궐에서도 일상적으로 서양포를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9) 金平默, 『重菴集』 권7, 「與任明老」(丙子 1876년 二月 十七日).

을 금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일수호조규 조인에 따른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6일 ‘朝日修好條規附錄’이 ‘朝日貿易規則’과 함께 체결되었다. ‘조일수호조규부록’은 보수유림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국민은 일본국민으로부터 매득한 화물 혹은 증여를 받은 諸物品을 자유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제8관은 양물의 수입을 사실상 허가하는 것이었다. 화서학과의 일원이었던 李昭應(1852~1930)은 1876년 12월 『洋物論』을 지어 양물금단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이소응은 양물은 通貨와 通色을 주로 하여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는 부류들이 만들어 낸 기교하고 음사한 물건이라면서 복식과 기용을 서양 것을 사용하면 道心이 민멸하고 人心만 불타올라 사람은 사람답지 않게 되고 나라는 나라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110)</sup> 서양물품의 사용이 유교윤리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양물금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양물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 5. 맺음말

18세기에 들어 중국과 일본을 통해 조선에도 서양물품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았고 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 반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 조선 지식인들은 교묘한 기계장치로 이루어진 자명종이나 시력을 교정해주는 안경, 실물처럼 정교한 그림 등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서양물품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는데 적어도 1770년 대까지는 호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여전히 화이 인식은 공고했지만 화이관이 서양물품에 투영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안경을 보고 구라과 사람들이 하늘을 대신하여 인을 행했다고 평가한 이익의 경우처럼

110) 제천문화원, 『國譯 習齋先生文集』 5, 2009, 237~240쪽.

서양물품의 접촉이 화이 인식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자유롭게 서양물품과 접촉하던 상황은 1780년대에 들어 천주교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는 서양금에 대한 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 황사영백서사건이 발생하면서 천주교와 서양 국가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이 고조되자 일부 보수유립은 양물 전체를 배척하기도 하였다. 천주당 방문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서양물품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었고, 1838년에는 정부에서 자명금·자명약·서양자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서양 물품의 유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물품으로 서양포가 수입되었는데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면서 토포 시장을 잠식하였다. 19세기 중반에 보수유립이 전면적인 양물금단을 주장하고 나섰던 데는 서양포의 확산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보수유립은 양물을 서양의 침략 수단으로 판단하여 정부에도 양물을 전면 금단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서양물품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병인양요를 계기로 보수유립의 양물금단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고 정부 또한 금단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서양 목의 수입이 금지되어 관세가 감소되자 1874년 정부는 양목의 수입 금지를 전격적으로 해제하였다. 1873년 말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면서 정부의 정책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이제 서양물품의 유입을 사상적 이유로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면서 서양물품의 유입은 사실상 허용되었다. 유입되는 서양물품의 종류와 양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양물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조일수호조규 이후 양물의 수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備邊司謄錄』·『通文館志』·『萬機要覽』·『慶尙左水營關牒』  
 黃胤錫, 『頤齋遺藁』  
 李 漢, 『星湖全集』·『星湖僿說』  
 俞晚柱, 『欽英』  
 南公轍, 『金陵集』  
 劉在建, 『理鄉見聞錄』  
 尹 愔, 『無名子集』  
 李恒老, 『華西集』  
 俞莘煥, 『鳳棲集』  
 元在明, 『芝汀燕記』  
 金景善, 『燕轅直指』  
 韓弼教, 『隨槎錄』  
 孝明世子, 『敬軒集』  
 金正喜, 『阮堂集』  
 朴思浩, 『心田稿』  
 金景善, 『燕轅直指』  
 金進洙, 『碧蘆續集』  
 任百淵, 『鏡語遊燕日錄』  
 저자 미상, 『赴燕日記』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晔光, 『芝峯類說』  
 奇正鎭, 『蘆沙集』  
 朴致馥, 『晚醒集』  
 鄭克淳, 『淵雷遺稿』  
 鄭宗魯, 『立齋集』  
 姜世晃, 『豹菴稿』  
 李 垺, 『燕行記事』  
 洪直弼, 『梅山集』  
 金平默, 『重奄別集』  
 『日記』  
 『龍湖閑錄』  
 金顯玉, 『山石集』  
 申箕善, 『陽園遺集』  
 任憲晦, 『鼓山集』  
 \_\_\_\_\_, 『鼓山續集』  
 崔益鉉, 『勉菴集』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고증시대사』 4, 2015.

제천문화원, 『國譯 習齋先生文集』 5, 2009.

陈开来, 『“自鸣钟”与近代中国社会的变迁』, 『文化遺產』, 2018年 第2期.

嚴中平 著·依田憲家 譯, 『中國近代産業發達史』, 東京: 校倉書房, 1966.

姜景勳, 『豹菴遺稿』의 ‘八物志’ 草藁本에 대하여, 『고서연구』 14, 1997.

강명관, 『조선에 온 서양물건들』, 휴머니스트, 2015.

고석규, 『19세기 전반 서울의 시전상업』,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내포교회사연구소,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기쁜소식, 2018.

노대환 『정조대의 서기수용 논의 - ‘중국원류설’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25-1, 1999.

노혜경, 『농업 경영과 치가(治家)』, 『승총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촌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李成美,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 대원사, 2000.

민병희·윤응현·김상혁·기호철, 『홍대용이 제작한 천문시계 등천의의 기계동력시스템』, 『천문학논총』 70, 2020.

박영미, 『19세기 조선인의 서구관-서양 기물의 수용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총』 32, 2011.

山口正之, 『清朝에 있어서의 在支歐人과 朝鮮使臣』, 『韓國天主教會史論文選集』 제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77.

신익철, 『18~19세기 연행사절의 북경 천주당 방문 양상과 의미』, 『교회사연구』 44, 2014.

오상학,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2011.

원재연, 『서세동점과 조선왕조의 대응』, 한울출판사, 2002

이종묵, 『정극순의 연뇌유고』, 『문헌과해석』 36, 문헌과해석사, 2006.

이준갑, 『李器之(1690~1722)의 『一菴燕記』에 묘사된 ‘작은 西洋’』, 『한국학연구』43, 2016.

鄭恩主, 『燕行使節의 西洋畫 인식과 寫眞術 유입 - 北京 天主堂을 중심으로 -』, 『명청사연구』 30, 2008.

崔韶子, 『東西文化交流史研究』, 三英社, 1987.

韓洵,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 『朝鮮時代思想史研究論叢』, 일조각, 1996.

連載, 『眼鏡の社會史』 (<https://www.tokyomegane.co.jp/news>)

## In the Mid-18th and Mid-19th Centuries, the Influx of Western Goods into Joseon and the Argument to Reject it

Noh, Dae Hwan\*

In the 16th century, European merchants and missionaries entered East Asia, and from this, a true global exchange took place. Goods played an important mediating role in this East-West exchange. The merchant's goal was to trade goods, and missionaries used various goods to spread Catholicism. Not only China and Japan, which had exchanges with Western countries, but also Joseon, which had no direct contact, understood the Western world through these goods. Western goods were not just objects, but the result of Westerners' scientific and cultural capabilities, so they had a great influence on Western perception.

Commodities are a very important subject in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the West, but research on Western products has not been actively conducted. Fortunately, related research has recently been conducted so that it is possible to roughly understand the inflow process of Western goods, but it is still not enough. Especially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is a lack of interest in the historical field.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ow of Western goods from the 18th century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gan to stabilize before the opening of the port. What I was

---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Dongguk University

curious about was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s advocated the exclusion of Western goods in the mid-19th century. In other words, it is intended to examine what Western goods were introduced, what was the perception of such goods, and how the argument for exclusion emerged. I hope this study will help us understand the ideological context of Western goods.

**Key words**: alarm clock, Western painting, dulcimer, glasses, Western Cotton,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